

치유의 도시 실현 예산 확보 나서

전춘성 진안군수, 기획재정부 단계 현안사업 국비 확보 당위성 피력 집중

진안군을 생태·관광·치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춘성 군수의 예산 확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29일 주요사업 소관 부서장들과 함께 기획재정부 농림해양예산과, 교육예산과, 안전예산과 관계자들을 만나 진안군 핵심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내년도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 예산 1차 심의 단계에서 부처에 반영된 국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건의한 국가예산 핵심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진안군 보훈회관 건립 △갈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

진안군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국비 지원 등이다. 전 군수는 이어 오는 7월 5일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국도 26호선 보통재 구간 도로개량사업 추진 △국도 30호선 도로확장 사업 △국도 49호선 도로개량사업에 대해 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생태·관광·치유의 도시 진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최종 예산안이 제출되기까지 기재부 설득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2023년도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지역현안·주민숙원 해결 기반 기대

무주군이 2023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행정안전부)로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 선형개선 사업비 11억원, 무주읍 읍내리 후도마을~산의실마을을 비롯해 무주가족센터 건립 사업비 6억원,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비 6억원으로 무주군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도 5호선(내동지구-내도리 후도마을~산의실마을) 선형개선 사업(2022. 10.~2024. 4.)'은 무주읍 내도리 전도마을에서 후도마을을 연결하는 군도 5호선(내동지구)의 도로 선형 및 배수개선을 진행하는 것으로, 위험도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주가족센터 건립(2020. 1.~2023. 12.)'건은 무주지역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가족형태를 포괄·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비롯한 가족센터, 교류소통 공간, 상담실 사무 공간 등을 조성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무주군 응급복구 자재창고 설치 사업(2023. 7. ~ 2024. 12.)'은 상수도 응급복구용 자재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주요 배수관로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 자재를 인근 도시(대전, 전주)에서 공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자재 공급이 불가능하던 상황에서 주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경기침체, 세수 감소 등 지방재정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확보된 특별교부세가 더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며 지방교부세 등 국가예산 확보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장수군, 인도 구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장수군이 오는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금까지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했으나, 8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된다. 현재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은 소화전 내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지만 인도가 추가됨에 따라 군은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추가로 차도와 인도가 구분된 인도 전 구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 2장의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신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장수=고관호기자

무주군, 귀농·귀촌 농업 창업·주택구입 지원

무주군이 오는 7월 13일까지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농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의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을 지원한다.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7. 1. 1. 이후 출생자)의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지원 희망자는 지원 사업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힐링은 진안고원에서 · 치유는 마을축제에서'

7월, 다양한 여름이야기 담은 진안군마을축제 펼쳐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각 마을 색이 담긴 진안군마을축제의 여름이야기가 시작된다. 먼저 7월 1일 성수면 중평마을에서 '과거 우리의 삶을 우리가란 축제 테마를 가지고 과거 마을에서 행해지던 대동두레(감매기)가 재연되며 현재에서 과거의 삶을 느껴보는 뜻깊은 행사가 진행된다. 7월 8일 정천면 학동마을에서는 주민과 출향인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절 우리가 즐겼던 돌 풍물놀이, 풍 나르기, 딱지치기 등의 추억 나누기 게임뿐만 아니라 호롱기 타작, 홀대 타작, 보리 그스를 등 치유체험도 경험할 수 있다. 이후에도 7월 11일에는 마을의 상징

인 느티나무 아래서 풍년농사7월제를 진행하는 진안을 공동마을축제, 7월 15일에는 부귀면 원세동마을 메타세쿼이아 잔디마당에서 피톤치드 건강 길 걷기 및 보물찾기, 같은 날 정천면 하초마을에서 성황당 축원제와 전통놀이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주민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북을 맞이하는 7월 21일에는 운장산을 품고 있는 정천면 마조마을 원터계곡에서 무더위를 날려줄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날인 22일 진안을 원연장마을에서는 마을에서 재배한 목화화연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거리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7월 29일(토) 백운면 삼백마을에서는

기고사를 테마로 한 축제를 진행하고, 같은 날 성수면 포동마을에서는 마을주민과 방문객이 어울려서 포동포동 두부 만들기 심지 화분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최인석 진안군마을축제조직위원장은 "마을마다의 이야기와 색이 담겨있는 것이 진정한 진안군마을축제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라며 "올여름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방문객과 출향인, 피서객이 한데 모여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마을의 이야기를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마을에서 펼쳐지는 진안군마을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진안군마을축제 사무국(063-433-54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호우특보 따른 상황판단회의 개최

장수군은 29일 호우 예비특보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내린 비로 현재까지 누적강수량이 200mm 이상이다. 또한 29일부터 30일까지 전북지역에 100~200mm까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장수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특보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비

상단계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29일 오전 9시부터 장계천면 및 번암천면 둔치주차장을 사전통제 했다. 또한 호우특보 발효 시 기상특보와 산사태위기경보 발령 시 대피 명령 문자를 발송하는 등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종훈 장수군 부군수는 "많은 비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호우가 예보된 만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사전에 예



방과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며 "특히 농경지 침수, 산사태,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계곡이나 하천 등에서도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진안군, 2023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 확보

재정사업 발굴·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 예산확보 노력 결실

진안군은 29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상반기 특별교부세 2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현안 14억,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9억으로 사업별로는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억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 7억 △방범용 노후 CCTV교체사업 2억원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적극적인 재정사업 발굴 노력과 수차례 중앙부처에 방문해서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 정치권 등에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펼친 결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안 반다비 체육센터는 연면적 3,300㎡(지상1층) 규모의 체육관, 다목적실, 수중운동실을 갖춘 시설로 23년 9월 착공할 예정이며 반다비 체육센터가 건립되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체육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황금천 재난위험교량 정비공사는 매년 우기시 침수피해 및 월류가 발생하는 부귀 황금천 교량 재가설 및 하천 정비사업으로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구간 정비를 통해 재해 위험을 해소하고 주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범용 노후 CCTV 교체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생활방범구역 CCTV 등 내구연한이 지난 CCTV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각종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진안=우태만기자

진안군보건소,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상반기 수료식

진안군보건소, 한의약 중풍예방교실 상반기 수료식

진안군보건소(소장 송미경)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지역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약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했으며, 29일 보건소 2층 강당에서 상반기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요법, 근육격계 통증 완화 등을 위한 운동, 심심이완에 좋은 단전호흡 등 저강도 운동으로 이

루어졌으며,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수료식을 못내 아쉬웠으며, 처음으로 접해본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대해 만족하며 건강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